

디지털로 복원한 고전 애니메이션 상영

ACC 시네마테크 28~29일 상영회 '홍길동' '콩쥐팥쥐' '아기공룡 둘리' 등 4편

한국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소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신동우 화백의 장편만화가 있다. 바로 '풍운아 홍길동'. 이 작품은 후일 신 화백 형인 신동현 감독이 영화화해 큰 히트를 쳤다. 개봉 이후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소년 용자 길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수출까지 하게 됐다.

'홍길동'을 비롯해 '호피와 차돌바위', '아기공룡 둘리', '콩쥐 팥쥐' 등 우리나라의 고전 애니메이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을 방학 기간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은 디지털로 복원한 4편의 한국 고전 애니메이션 복원작을 상영한다. 오는 28~29일 오후 3시와 7시 ACC 문화정보원 극장 3.

이번 상영회는 ACC 시네마테크 정기상영회 프로그램으로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상영작들은 심층 기계 학습 기반 인공지능을 매개로 심화 복원했다는 특징이 있다. 화질이 깨끗하고 음향이 풍성해 보는 맛과 듣는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먼저 첫날 오는 28일(오후 3시)에는 신동현의 '홍길동'이, 오후 7시에는 '호피와 차돌바위'가 상영된다. 3시 '홍길동' 상영 이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모은영 프로그래머와 한병아 감독을 초청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29일 오후 3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만화 캐릭터 김수정의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이 관객들을 만난다. 지난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에 연재돼 인기를 끌었던 '아기공룡 둘리'는 이후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 방영돼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대표 만화 캐릭터로 각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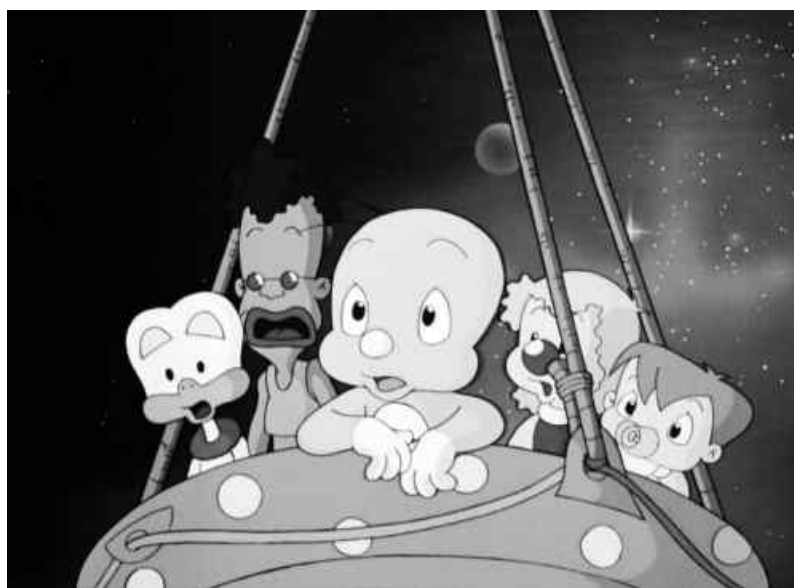
특히 극장판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은 둘리의 모험길을 다채롭게 펼쳐내 눈길을 끌었다. 남극의 빙산 속에 얼어 있던 둘리가 한강으로 떠내려 온 이후부터 기존의 서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후 타임 코스모스 오작동으로 우주로의 모험길에 오르는 과정까지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강태웅의 '콩쥐 팥쥐'가 상영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동화인 '콩쥐팥쥐'를 '장화 홍련' 이야기와 함께 각색한 인형 애니메이션이다. 1964년 실험영화동호회 '씨네퍼럼'의 발족인이자 한국의 대표 영화 감독인 유현목이 제작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는 드물었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점이 이색적이다.

ACC시네마테크는 지난 달 '전주국제영화제 교류전'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작품과 국내 유수 국제영화제에 출품됐던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홍길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아기공룡 둘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한편 영화는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062-601-44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최근 대전에 사는 지인 A가 광주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했으며 안부를 전해왔다. 그러면서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를 방문하고 싶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다. 순간, 오래전 비슷한 부탁을 받고 난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 2006년 4월, 당시 기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K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며칠 후 광주를 공식방문하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2005년 10월~2008년 9월 재임)의 동선을 짜는 데 필요하다며 예술의 거리에서 꼭 봐야 할 명소와 사람들이 많아 경호상 피해야 할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피습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향 1번지'를 자부하는 예술의 거리 현주소다.

물론 광주시는 쇠락해가는 예술의 거리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2010년 이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벤트 위주의 프로젝트로 끝나면서 '말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지만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작 일부 점포들의 경우 평일 저녁 8시면 문을 닫기 바쁘고 휴일에는 아예 철사하는 등 썰렁한 거리를 자초한 '내부'의 무성의도 한 몫하고 있다.

'VIVA 예술路' 이번엔 통할까?

2박3일간의 빠듯한 일정에 굳이 예술의 거리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자, 예향 광주의 '뿌리'를 보고 싶다는 대사의 '희망사항'이라고 했다. K와의 짧은 대화를 마친 후 한동안 막막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서울의 인사동' 줌으로 기대한 버시바우 대사의 '환상'을 깨뜨릴지 모른다는 걱정에서였다. K는 '선택'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주립 만한 곳이 거의 없었다. 곰곰히 생각한 끝에 당시 유일하게 전시회를 열고 있던 N 갤러리와 한 서예가의 작업실을 소개했다. 며칠 후, 광주에 온 버시바우 대사는 (기자가) 추천한 갤러리와 인근의 화방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사람과 '예술'이 사라진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

최근 광주시가 매주 토요일 공동 예술의 거리를 주 무대로 '예술의 거리 축제' (6월11~10월 30일)를 진행하고 있다. 'VIVA 예술로(路)', 그대를 위한 7개의 예술 선물'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비바 예술 공연, 비바 뉴아트, 예술로 소풍 등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거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간의 예술의거리 살리기 프로젝트가 통하지 않은 건 근본적인 처방 보단 반쪽요과에만 급급한 탓이 크다. 전시와 판매 가능 중심의 현재와 같은 삭막한 환경에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불러 모으지 못한다면 머지 않아 예술의 거리는 추억 속에서나 존재할지 모른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과연 예술의 거리는 얼마나 변했을까.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그 시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예술의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과 예술 대신 주차된 자동차들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커

모름지기, 예술의 거리는 아시아문화전당(ACC)과 인접한 예향 광주의 심장이다. '공동의 부활'은 ACC의 성패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을, 마음의 여유가 우리 에겐 없다. <문화·예향 담당국장, 선임기자>

'고뇌' 모티브... 현실의 승자가 되지 못한 이들의 삶

고흥 출신 이중섭 '직박구리가 사는 은행나무' 펴내

고흥 출신 이중섭 작가가 소설집 '직박구리가 사는 은행나무' (문이당)를 펴냈다.

지난 2020년 첫 장편 '포토타임' 이후 2년 만에 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8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모티브는 '고뇌'다. 사전적 의미의 고뇌는 "정신적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림"을 뜻한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고뇌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제작 '직박구리가 사는 은행나무'는 세 인물이 처한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나와 윤 변호사, 현호는 한때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해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현호는 목표를 낮춰 법무사 시험을 대비한다. 윤 변호사는 자리를 잡지 못해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세 인물의 공통점은 "현실의 승자가 되지 못하면서 이들에게 욕망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세 사람의 이런 처지란 마치 "은행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직박구리 신세"와 다를 바 없다.

작가는 소설 속 인물들의 모습을 오늘을 사는 다수 서민들의 모습으로 치환하는 것 같다.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삶은 어쩌면 '더부살이의 삶'과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은중 문학평론가는 "이중섭의 작품들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어떤 이상적인 목적이 전제되지도 않고 추구되지도 않아 갈등과 부조리가 반복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평한다.

한편 이중섭 작가는 전남대 독문과를 졸업했으며 2019년 '인간과 문학'에 단편 '숨은 벽' 신인작품상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왕' 조용필 음반 4개 한정판 LP 선보여

18집 '오버 더 레인보우' 등

가왕 조용필이 자신의 음반 4개를 한정판 LP(사진)로 선보인다고 유니버설 뮤직이 19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LP로 제작되는 음반은 16집 '이터널리' (ETERNALLY), 17집 '엠비션' (AMBITION), 18집 '오버 더 레인보우' (OVER THE RAINBOW), 19집 '헬로' (Hello) 등이다. 2013년에 한정판 LP로 제작된 바 있는 19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음반이 LP 음반으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한정판 LP 음반 제작은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과 발매 및 유통을 맡은 유니버설 뮤직, 그리고



음반제작사 뮤직버스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번 한정판 LP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내달 2일 정오까지 각종 온라인 음반 사이트와 오프라인 예약처를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